

4월 자동차 생산·수출 모두 감소

자동차 생산량 전월비 7.4% 줄어든 35만4156대
수출도 전년보다 8.0% 감소한 22만273대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수출 모두 감소한 반면 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달 해외 재고조정과 수출 감소에 따른 생산량 조절 등으로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대비 7.4% 줄어든 35만4156대였다.

업체별로 보면 현대는 SUV(싼타페, 코나) 중심으로 내수가 늘었으나 수출 감소에 따른 생산량 조절로 4.7% 줄었다. 한국지엠은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30.7%나 생산이 감소했다.

수출은 신차 출시를 앞둔 기존 모델의 수출 감소와 미국지역 재고조정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감소한 22만273대를 기록했다.

현대신 신규모델 신타페 출시 준비로 일시적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북미 등에서의 재고 조정 등으로 인해 11.4% 감소했다. 기아도 구형 모델의 수출 부진과 해외 재고 조정 등으로 7.2% 줄었다.

유럽연합(EU) 수출은 증가했으나 북미, 중동, 중남미, 오세아니아 지역의 수출 감소로 금액기준으로 전년 동월비 8.6% 감소한 35억5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국내 판매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한 16만742대를 판

매했다. 국산차는 1.4% 증가한 13만 3575대를, 수입차는 24.4% 증가한 2만 7167대 판매를 기록했다.

현대신 신타페의 본격 출시 영향 등으로 5.7% 증가했다. 기아도 신형 K3/K9, 카니발 출시 영향 등으로 14.9% 늘었다. 한국지엠은 대표 차종인 스파크, 말리부 등이 부진을 겪으며 54.2% 감소했다.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판매 호조로 전년 동월대비 14.2% 증가한 8281대를 판매했다. 수출은 니로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수출 감소로 11.4% 감소한 14971대를 수출했다.

자동차 부품 월간 수출은 중국시장 회복과 신형차에서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6.6% 증가한 20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뉴시스



기업의 혁신성장, 대한민국을 새롭게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가 열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행 스타트업 '트리플', 120억원 투자유치

지난해 7월 트리플 앱 정식 출시 후 첫 번째 투자유치
출시 9개월만에 가입자 수 100만명 돌파
전 세계 80여 개 도시 여행 정보 가이드 서비스

여행 스타트업 '트리플'이 네이버와 야놀라 투자,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로부터 12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트리플 앱 정식 출시 이후 단기간에 이뤄낸 첫 번째(시리즈A) 투자 유치다.

모바일 앱 트리플은 우리나라의 여행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 80여 개 도시의 여행 정보를 여행자의 위치와 동선에 맞게 제공하는 실시간 해외 여행 가이드 서비스다.

지난달 출시 9개월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성

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호텔과 현지 투어, 액티비티 등 각종 여행 상품을 여행자의 일정이나 여행 목적에 맞게 추천, 판매하는 서비스를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연정 트리플 대표는 "이번 투자유치로 서비스 대상 도시를 대폭 확장하고 콘텐츠를 보강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여행업체와도 긴밀히 연계해서 해외여행은 트리플 하나로 모든 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부 동물복지무항생제 인증

하림, '그리너스' 출시... 동물 습성 존중 농장답으로 만들어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 브랜드 '그리너스'를 본격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가심비(價心比,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윤리적 소비'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인증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며 대대적인 전국 출시에 나선 것.

하림은 국내에 동물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던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생산시스템을 도입하며 '행복한 닭'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동물복지 기준보다 더 까다롭게 관리된 닭을 상품화한 '그리너스'를 선보였다.

하림 '그리너스'는 사료부터 관리되며 사육단계에는 동물의 습성을 존중해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농장에서 키운다. 하림 '그리너스' 생산농장에서는 높은 곳을 좋아하는 닭의 습성을 고려해 계사 내에 햇대를 설치하고 닭의 짙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양배추와 각종 채소류, 나무조각 등을 제공해 닭의 본능을 최대한 표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한다.

하림 신선마케팅팀 정충선 부장은 "사감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 한해 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하며 자연과 사람에게 모두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김동연 “외환정책 투명성... 단계적 추진”

“예산 집행 때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외환정책 투명성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게 제고되고 시장 여량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조치 공개가 기본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임은 맞다. 경제성숙도를 고려할 때 내역 공개도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급격한 수출이 있을 때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기존 원칙을 변함없이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에서도 한 마디 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새벽까지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다”며

“추경 통과 즉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혁신성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산업 업종별 여건을 분석해서 맞춤형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방안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먹거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핵심 규제 없애도록 하겠다”며 “혁신성장의 모든 부분, 규제 혁신을 포함한 새로운 일자리 수요 창출 방안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예산집행률과 관련, “집행률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청년 중소기업 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며 “예산 집행에서 집행 방법과 시기에 있어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급자리론 신청 2600건 돌파

지난달 25일 출시된 신혼부부·다자녀 보급자리론 신청이 2600건을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정환)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급자리론이 출시 이후 일평균 127건의 신청건을 기록하며 15일 기준 2675건이 신청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체 보급자리론 신청 4373건의 61%, 금액 기준으로는 약 65%를 차지하는 수치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급자리론은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8500만원까지 늘리고,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 최대 1억원, 대출한도 최대 4억원까지 높은 상품이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 우대조건 최소화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출시

케이뱅크는 17일 복잡한 우대조건을 최소화하고 금리는 높은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월 최소 1000원 이상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 3계좌까지 가입할 수 있다. 1인당 월 최대 9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금리 연 2.0~2.2%에 최고 연 0.6%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최대 연 2.6(1년)~2.8%(3년)까지 제공된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중 택1 ▲체크카드 월 20만원 이상 사용 등 두 가지만 충족하면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이체 인정기준은 50만원 이상의 급여와 함께 월급·급여·수당·보너스 등 급여임을 알 수 있는 단어 또는 고객정보의 직장명이 임금 적요에 포함돼야 한다. 통신비 자동이체는 케이뱅크 입출금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통신 3사의 통신비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된다.

케이뱅크 안효조 사입출금본부장은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우대금리 조건을 단순화해 보다 많은 고객이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케이뱅크를 많이 이용하는 고객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독·광고문의 288-9700